

공공도서관 영유아실 자료조직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J시 시립도서관의 배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ource Organization in Infants & Young Children's Section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the Arrangement of Library Materials in J City's Municipal Libraries

형은영 (Eunyoung Hyeong)**

김수정 (Sooj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영유아 도서관의 자료조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J시에 소재한 8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을 대상으로 자료조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분석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실 담당 사서 8명, 영유아실을 방문한 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도서관에서 KDC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었으나 배가는 분류체계와는 달리 출판사명의 자모순 배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출판사별 배가 방식은 사서 측면에서는 정리의 편리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용자들은 분류체계와 배가의 이원화로 인해 자료 검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온라인검색목록시스템의 검색 결과에 도서 위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KDC를 유지하되 배가 방식을 청구기호 순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2) 새로운 영유아용 분류표를 개발하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a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resource organizat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s resources, this study examined 8 municipal libraries in J city and suggeste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do tha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children's librarians and 25 users, who were parents visiting the libraries. All libraries examined were using KDC to classify young children's resources, but books were shelved by the alphabetic order of publishers' names. This arrangement strategy was regarded very convenient in re-shelving materials from the perspective of librarians, but users had difficulties in finding books because of the separ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arrangement system. Also, the online public cataloging system did not provide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to locate a book.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wo ways for improvements: (1) classifying and arranging books by KDC, (2) developing a new classification system customiz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키워드: 어린이도서관, 영유아, 자료조직, 분류체계, 배가,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children's library, infants & young children, resource organization, classification system, library material arrangement, online public cataloging system (OPAC)

*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석사과정(mint0424@nate.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kimsoojung@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8월 8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8월 31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9월 19일
■ 정보관리학회지, 33(3), 85-106,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3.08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어린이 교육은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으로써 어린이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 기관 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다른 관공의 도서관에 비해 이용자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의 이용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영유아¹⁾에게도 해당된다(방혜옥, 2012). 도서관에서 영유아가 갖는 경험이 점차 강조되면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2003년에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y Services)』(IFLA, 2015)을 발표하는데 이어 2008년에는 『영유아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and Toddlers)』(IFLA, 2014)을 발표함으로써 어린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준 바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2015 내 생애 첫 책' 시범사업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전국 19개 기초지자체, 29개 협약도서관을 통해 진행되었다. '2015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생애 첫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생후 6개월~36개월의 영유아

에게 그림책과 기념품을 담고 있는 책 보따리 10,496개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학부모 독서 교육 프로그램에 총 1,396명이 참여하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이 좋아요' 프로그램에는 1,472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뉴스와이어, 2016.3.10).

한편,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꿈나무 영유아도서관'이라는 영유아전용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그동안 영유아실은 어린이실 내에 일부 공간으로 마련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꿈나무 영유아도서관'은 영유아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탄생하면서 새로운 영유아도서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꿈나무 영유아도서관은 영유아들이 책과 놀이를 통해 인지력을 발달시키고 독서습관 형성 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용 도서는 물론 놀이대와 수유실과 같은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점차 도서관에서 영유아들이 중요한 이용자 집단으로써 인식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현황조사 혹은 프로그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윤희정, 2011; 조지은, 2012; 방혜옥, 2012; 강경신, 2013), 영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조직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면서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조직이 필수적인 선결과

1) 우리나라 「영유아 보호법」에 따르면 출생 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 한다.

제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들을 위한 자료들은 성인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자료와는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조직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J시에 소재한 8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을 대상으로 분류, 배가,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측면에서 자료조직 실태를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영유아실만의 자료조직에 초점을 둔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어린이도서관 혹은 학교도서관 환경에서의 자료조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어린이 자료의 분류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고자 한 연구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정연경, 최윤경, 2009). 이운선(2002)은 사서 교사를 대상으로 분류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간략판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권달영(2008)도 KDC 제4판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인 파랑새 분류표, 느티나무 분류표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KDC 간략판을 제안하였다. 김정현과 김연례(2003)는 총류(000)와 문학류(800)를 중심으로 어린이 자료의 부분에 적합한 KDC의 수정전개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정현(2004)은 학교도서관에 실제로 소장된 문헌의 KDC 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사회과학류(300)와 순수과학류(400)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정현과 문지현(2007)은 느티나무 분류표와 파랑새 분류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 전용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안하였다. 후에 문지현(2008)은 국내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사용 현황 및 분류 내용을 조사하고 일부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관개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분류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김천숙(2005)은 국내 공공도서관 42곳, 사립어린이도서관 1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림책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KDC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도서를 위한 분류체계를 배가 혹은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조직의 문제를 보다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있다. 정연경과 최윤경(2009)은 국내 51개 어린이도서관의 KDC 적용 현황 조사와 부모와 어린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KDC 개선 방안을 분류체계 부문과 배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류체계 부문에서는 특정 기호에 집중되는 주제를 분산시키고, 다양한 어린이 문학 장르를 반영하고, 학제적 주제에 대한 주기 및 분류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배가 부문에서는 분류기호를 간략화하고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저자 기호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료 배열 방법과 청구기호에 대한 이용자 친화적 접근을 제안하고, 연령 구분 조기표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반영한 컬렉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채령(2012)은 부산·울산·경남지역 17개 어린이도서관의 분류, 배가, 목록을 중심으로 자료조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로 분류·배가하고 있으며 도서기호는 수입순기호의 사용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저자기호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분류 측면에서는 KDC 체계에 준하여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전문분류표를 개발하고, 배가에 있어서는 청구기호에 사용되는 도서기호를 수입순기호 보다는 저자기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임기수(2012)는 국내 35개 어린이도서관의 그림책 분류 및 배가 상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KDC를 근간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배가는 자관의 이용자와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편리성을 고려하여 연령별, 서명의 자모순, 출판사별 등으로 다양하게 배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그림책의 특성을 살린 별치기호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자관에 맞는 레이블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장르와 종류를 고려하여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전집의 경우 총서보다는 개별 도서별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1.3 해외 사례

미국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어린이 장서는 크게 픽션(fiction)과 논픽션(nonfiction)으로 구분되며, 픽션은 동화, 어린이 소설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어린이 장서는 전통적으로 DDC로 분류되되, 픽션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논픽션은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Solomon, 1997). 저자가 창작한 허구의 이야기를 담은 픽션을 저자명에 따라 배열하는 것은 미국 어린이 문학의 작가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독자들이 어릴 때부터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논픽션은 DDC 번호가 포함된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유사한 주제의 책을 한데 모으는데 매우 유용하다(Jackman, 2014).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어린이 장서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DDC 대신에 새로운 분류체계와 배가방식을 도입하는 도서관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Darien 공공도서관의 First Five Years Project를 수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2009년에 0-5세 영유아들을 위한 First Five Years Collection을 재조직하면서 픽션을 DDC가 아닌 어린이의 관심사로 구성된 10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Parrott & Gattullo, 2013): (1) Favorites, (2) Concepts, (3) Rhymes and Songs, (4) Growing Up, (5) Nature, (6) Transportation, (7) Celebrations, (8) Stories, (9) Learning-to-Read, (10) Parents-material. 이 도서관에서는 각 도서를 1차적으로 이 주제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고 2차적으로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도서의 책등라벨에는 주제와 저자명을 표시하고, 하단에 각 주제에 해당하는 색깔 띠지를 부착하여 시각적으로 같은 주제의 책들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논픽션을 위한 자료조직은 Dewey Hybrid Model 혹은 Dewey Lite라 부르는데 1차적으로는 Animals, Create, Facts, Fun 등과 같은 9개의 대범주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 해당 색깔 띠

지를 부착하고, 2차적으로는 청구기호를 기준으로 배열하고 있다(Parrott & Gattullo, 2013). 책등라벨에는 대범주 카테고리 및 이와 관련된 DDC 번호를 병기하여 이용자들이 DDC에 익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Darien 도서관의 분류 및 배가 방식의 장점은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주제별로 자료를 한데 모을 수 있고, 둘째, 그 주제들을 숫자나 코드가 아닌 자연어로 표현하며, 셋째, 색깔 띠지라는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 이용자들이 서가에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관적이고 어린이 친화적인 분류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이 도서관의 대출율이 80%나 상승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Darien 도서관의 성공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Ethical Cultural Fieldston School의 사서 4명은 2011년에 어린이 장서를 위한 Metis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Kaplan, Giffard, Still-Schiff, & Dolloff, 2013). Metis는 Darien 도서관의 분류체계와 유사하게 어린이의 관점에서 설계된 26개 대범주를 사용하며 유아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책등라벨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1) 별모양 혹은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픽션과 논픽션을 구별하기 위함), (2) 청구기호, (3) 각 대범주를 표시하는 그림 띠지이다. 그림띠지는 단순히 색을 표시하는 색깔 띠지와는 달리 Pets 범주를 뜻하는 그림 띠지에는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등 해당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Metis는 대상 어린이 연령 범위가 넓고 범주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어린이전문 사서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최근 미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학교도서관 장서를 SF, 판타지, 모험, 스포츠, 유머 등 장르별로 분류한 사례(Jackman, 2014; Hembree, 2010), 그리고 Accelerated Reader(AR) scores 나 Lexile scores와 같은 읽기 난이도 수준에 따라 분류한 사례도 있다.

한편,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정진수(2009)가 분석한 미국의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들은 자료의 내적 접근점(서명, DDC, 주제명 등)과 외적접근점(저자정보, 읽기 난이도 지수, 문학상 수상 작품 등)을 모두 풍부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특정 도서를 찾는 경우, 그리고 모호한 정보요구를 갖고 있을 경우에 상관없이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어린이 목록만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제명 검색에 있어서 기존의 주제명표목표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검색하는 주제들만을 선별하여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어린이 장서에 특화된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영유아실의 자료조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J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을 분석대상 도서관으로 선정하였다. J시에는 2016년 5월 현재 총 10개의 시립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독립적인 영유아실을 갖추고 있는 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인 모든 도서관에서 어린이실 담당 사서가 영유아실을 관리하고 있었다. 분석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실/영유아실 장서량 및 전용면적은 <표 1>과 같다. F도서관에서는 영유아실이 어린이실과 다른 층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어린이실 내에서 물리적인 구분을 통해 영유아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분석대상 도서관 어린이실 담당 사서 및 영유아실 이용자들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재 전반적인 영유아실 자료조직의 현황, 그리고 관리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내의 배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서가를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목록 검색시스템을 조사하여 이용자들의 자료 접근 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배가 정보가 온라인검색 결과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사서와의 인터뷰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평균 소요시간은 40분이었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터뷰 질문지는 3개 영역에서 10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영유아실 자료에 현재 사용 중인 분류법의 장단점 및 이용자들의 분류표 이해 정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분류 영역, 영유아실 자료의 배가방법과 띠지 사용의

<표 1> 분석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실/영유아실 장서량 및 전용면적

도서관	장서량(권)*		전용면적(m ²)**	
			어린이실	영유아실
A	어린이실	38,565	어린이실	196
			영유아실	
B	어린이실	35,170	어린이실	160.56
			영유아실	41.4
C	어린이실	38,437	어린이실	222.48
			영유아실	93.6
D	어린이실	41,802	어린이실	261.1
			영유아실	113.5
E	어린이실	31,548	어린이실	160.38
			영유아실	82.75
F	어린이실	25,519	어린이실	454.18
	영유아실	14,959	영유아실	311.98
G	어린이실	19,612	어린이실	227.22
			영유아실	75.05
H	어린이실	9,313	어린이실	158
	영유아실	4,117	영유아실	78.3

* F, H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들은 영유아실의 장서량을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고 어린이실 장서에 포함하고 있기에 어린이실 장서량만을 표시하였음

** A 도서관은 영유아실 전용면적을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음

〈표 2〉 사서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과 내용

영역	질문 내용	문항 수
영유아실 자료의 분류	• 사용하는 분류체계 • 현 분류체계에 대한 만족여부와 장단점 • 이용자들의 분류체계 이해 정도	3
영유아실 자료의 배가	• 사용하는 별치기호 • 자료의 배가방법 • 사용하는 띠지 • 이용자들의 띠지 이해 정도 • 현 배가 방식의 장단점	5
영유아실 자료의 온라인 목록	•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유무 •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이용편의성	2
합계		10

장단점, 이용자들의 띠지 이해 정도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배가 영역, 영유아실 자료 검색을 위한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유무 및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이용편의성 등을 포함한 온라인목록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부모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이를 허락한 25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6년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평균 소요시간은 15분

이었다. 이용자 인터뷰 질문은 총 10문항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서 인터뷰 결과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배가로 확인되어 이용자 인터뷰에서는 이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표 3〉 참조).

인터뷰에 응답한 사서 9명 중 여성은 8명(88.9%), 남성은 1명(11.1%)이었고, 연령은 20대가 3명(22.2%), 30대가 4명(44.4%), 40대가 3명(33.3%)으로 분포하였다. 어린이실 근무경력 1년 미만이 4명(44.4%), 1년 이상 3년 미만

〈표 3〉 이용자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과 내용

영역	질문 내용	문항 수
영유아실 이용 경험	•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 이용 경험 • 타 도서관 영유아실의 이용 경험 • 자료 찾기에 있어서 어려움	3
영유아실 자료의 배가	• 출판사별 배가의 이해 정도 • 도서 선택 시 출판사의 중요도 • 출판사별 배가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 배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 선호하는 배가방식	5
영유아실 자료의 온라인 목록	•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이용 정도 •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이용의 만족도	2
합계		10

과 3년 이상 5년 미만이 각각 2명씩(각 22.2%), 그리고 5년 이상이 1명(11.1%)이었다.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는 여성 23명(92.0%), 남성 2명(8.0%)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을 살펴 보면 미취학 아동의 부모로 30대인 경우가 12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용자들이 6명(24.0%), 20대가 5명(20.0%), 50세 이상이 2명(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연령 층에 대해 문의한 결과 늦은 결혼으로 출산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영유아실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나 학교에서 과제로 내주는 권장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가 미취학 어린이가 아님에도 영유아실을 주로 이용하거나, 동반한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가장 어린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영유아실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50세 이상은 조부모가 손자를 동반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날에 영유아실 이용 경험이 처음이었던 이용자는 1명(4.0%)이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명(48.0%), 1년 미만이 7명(28.0%), 3년 이상이 5명(20.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조직 실태 분석

3.1 분류 실태

분석대상 도서관 영유아실에서는 어린이 자료 분류를 위해 모두 KDC 제4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문학 장르나 새로 신설된 주제에 대해서는 제5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기호는 모두 장일세도서기호법을 사용

하고 있었다. 사서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J시 시립도서관의 자료들은 본관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외부업체에 맡겨 구매하고 있고 구매업체에서 청구기호까지 부여한 상태로 도서관에 입고되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들이 동일한 분류체계와 도서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현 분류체계에 대한 만족여부 조사 결과, 사서들은 영유아실에서 KDC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공동목록의 이용을 위해서는 KDC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KDC가 이용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분류표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서들에게 다른 분류표로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9명중 8명이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의 사서만이 KDC보다 어린이 도서에 더 적합한 분류법이 있다면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3.2 배가 실태

3.2.1 현재 배가 방식

J시 시립도서관들은 KDC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배가는 청구기호순이 아닌 출판사명자모순 배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경 한 사서가 근무하던 도서관에서 그림책 배가의 효율성의 도모하고자 처음 실시하였고 이후에 주변 지역 타 도서관 사서들이 이 방식을 따라함으로써 현재는 J시 전체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의 배가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출판사별 배가는 모든 책에 적용하여 배가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량이 많거나 이용자들

이 즐겨 찾는 주요 출판사의 도서들에 한하여 출판사명이 적힌 띠지를 부착하여 배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출판사의 종류는 도서관별로 상이하였다. <그림 1>은 A도서관 유아실의 출판사별 배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들은 출판사별 배가에 해당하지 않는 책들을 일반적으로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를 하고 있었다. 또한, 장서가 밀집되어 있는 800번대(문학) 도서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이용자의 자

료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색깔띠지²⁾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도서관에서는 KDC 800-810번 대까지는 빨강띠지, 820-830번대는 검정띠지, 840번 대는 파랑띠지, 850-890번대는 녹색띠지, 나머지 번호는 노랑 띠지로 부착하여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색깔 구분은 결국 KDC의 800번대 도서의 국가 분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는 H도서관의 빨강, 녹색 색깔띠지의 서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 A도서관 유아실의 출판사별 배가 모습



<그림 2> H도서관 색깔띠지 서가 모습

2) 색깔띠지, 색깔 레이블, 색깔 라벨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도서관 사서들이 '색깔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그러나 B도서관과 E도서관은 이러한 일반적인 배가 형태에서 다소 벗어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B도서관은 주요 출판사에 해당하지 않는 책들을 청구기호 순이 아니라 다시 출판사별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이에 해당하는 색깔띠지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판사명의 자음순으로 ㄱ~ㄴ에 해당하는 도서들이 빨강띠지, ㄹ~ㅅ은 파랑띠지를 부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출판사의 도서들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이 함께 배가되고 있으나 기타 도서들은 출판사명의 자음이 동일한 도서들이 한데 배가되고 있었다. B도서관 배가의 또 다른 특징은 장서량이 많은 출판사나 색깔띠지 내에서는 자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번호 순으로 배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3〉참조). 그러나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책들은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되고 있다.

E도서관에서 출판사명의 자모순으로 배가하는 방식은 다른 도서관들과 유사하지만 특별히 한국동화(813.8)와 영미동화(843.8)에 해당하는 책들을 ‘한국동화’와 ‘영미동화’ 띠지를 부착하여 출판사별 서가의 ‘ㅎ’과 ‘ㄹ’ 부분에 마치

출판사 이름인 것처럼 함께 배열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영아용 도서들을 크기별로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 이는 영아책 중에 크기가 작은 책들이 많고 영아실 구축시 크기가 다른 서가들로 구성하다 보니 청구기호 순이 아닌 서가에 맞춰 도서의 크기를 기준으로 배가를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밖에 분석대상 도서관들은 〈표 4〉와 같이 영아용 도서, 신간도서, 전집, 북스타트용 도서 등에 별치기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배가하고 있었다. 특히 영아용 도서의 경우에는 모든 도서관에서 유아책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아’ 띠지를 부착하고 있었다.

〈표 4〉 별치기호의 종류

별치기호	도서관 수
영아책 별치	8
신간도서 별치	8
전집 별치	7
북스타트용 도서 별치	6
권장도서 별치	3
전시도서 별치	1
동아리 수업용 도서 별치	1



〈그림 3〉 B도서관 도서 일련번호

〈표 5〉 주요 출판사에서 출간되지 않은 도서에 대한 배가 방식

도서관	배가 방식
A, C, F, G	• 청구기호 순 배가
B	•출판사명 자모순 배가 후 자체 일련번호 순 배가
D	•청구기호 순 배가 예외1) 한국동화(813.8)과 영미동화(843.8) 책들은 주요 출판사 도서 중 'ㅎ'과 'ㄹ' 사이에 함께 배가 예외2) 전집은 총서명의 자모순 배가
E	•청구기호 순 배가 예외1) 영아 도서는 도서 크기에 따른 배가

모든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에서는 주요 출판사의 도서에 대하여 1차적으로 출판사명 자모순 배가 후 2차적으로 청구기호 순 배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출판사에서 출간되지 않은 도서들에 대한 배가 방식은 자관마다 조금씩 다르다(〈표 5〉 참조).

3.2.2 현 배가 방식의 장단점

어린이실 사서 8명과 인터뷰에서 도출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별 배가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은 첫째, 도서를 정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영유아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서가에서 빼내는 도서의 양이 다른 자료실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유아 도서의 특성상 두께가 얇고 크기가 다양하여 책등의 청구기호를 식별하여 제 위치에 다시 꽂는 방식은 시간상 매우 비효율적인 반면, 출판사 자모순 및 색깔띠지에 기반한 배가 방식은 도서의 정리와 재배가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서들은 이를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둘째, 도서관 취약 계층들도 이용이 용이하다. 영유아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아직 글씨를 모르는 미취학 어린이이며 보호자를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부모가 동반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글씨를 아직 모르는 아동,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른들에게도 색깔로 서가를 구분해 놓는 방식이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청구기호를 들여다보는 것에 비해서 편리한 방식이라고 사서들은 응답하였다. 또한 청구기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용자들 역시 출판사나 색깔띠지의 배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는 응답이었다.

셋째,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출판사의 책을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세계명작과 전래동화의 경우에는 다수의 출판사에서 동일한 내용의 책을 출판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유사한 내용의 책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출판사의 책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용자들에게는 출판사별로 책들을 한데 모아 놓는 방식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 배가방식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첫째, 영유아실을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출판사별 배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은 대부분 청구기호 순 배가에 익숙한 이용자들로서 출판사별 배가 방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느낀다

는 것이다. 사서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문을 읽어보거나 사서에게 한두 번 도움을 받은 이후에는 곧 적응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특정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찾는 것이 어렵다. 최근 유아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교육방식인 '프로젝트 수업'이 요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붐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여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오기와 같은 과제도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받은 유아가 보호자와 도서관을 방문할 경우, 원하는 주제의 책들이 출판사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가의 여러 곳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셋째,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기호 순 배가는 청구기호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배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에서는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배열순서의 기준이 두개 이상인 경우가 많고 비일관적인 부분도 많아서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넷째, 도서관 간 배가 방식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는 아동 도서를 찾기 위해서 한 도서관에서는 '빨간 띠지' 서가를 찾아야 하고 다른 도서관에서는 출판사별 서가에서 '킨더랜드'를 찾아야 하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별치기호 'S'가 부착된 전집 서가를 찾아야만 한다. 이는 '킨더랜드'라는 출판사가 한 도서관에서는 주요 출판사로 분류되어 출판사별 배가 방식에 따르고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서는 주요 출판사에 속하지 않아서 미국동화에 해당되는 색깔띠지를 부착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전집으로 분류돼 별도의 별치기호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사서들은 어린 유아를 동반하는 부모들이 주로 집에서 가까운 하나의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가 방식에 있어서 도서관 간의 통일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일부 사서들은 도서관 간의 비일관성이 이용자의 검색 효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사서들은 현 배가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의 편리성 때문에 현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근무 경력이 짧은 일부 사서들은 본인들도 처음에는 이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음을 토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현 배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3.2.3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배가 방식

영유아실을 이용하는 부모들과의 인터뷰 결과, 출판사별 배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48.0%로 가장 높았다(<표 6> 참조). 그 이유로는 특별히 더 신뢰하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는 출판사별 배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출판사별 배가가 더 이용하기 편하다는 응답을 한 이용자가 다수 있었다. 또한 J시 시립도서관에서의 이용 경험이 쌓이면 서 출판사별 배가 방식에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답변도 있었다.

〈표 6〉 이용자 선호 배가 방식

선호하는 배가 방식	응답자수	비율(%)
출판사별 배가	12	48.0
주제별 배가	6	24.0
청구기호 순 배가	4	16.0
기타	3	12.0
합계	25	100.0

출판사별 배가방식 다음으로 선호하는 배가 방식은 주제별 배가로 응답자 중 24.0%가 이를 선택하였다. 이들은 KDC 분류가 아닌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물이나 로봇, 자동차, 우주에 관한 책 등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주 찾는 책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답변이었다. 특히 아직 스스로 책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의 경우, 좋아하고 관심을 보이는 영역이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으며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집착에 가까운 애착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영유아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만 지속적으로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주제의 책을 찾기 위해 보호자는 서가를 이리저리 헤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이 선호하는 배가 방식은 청구기호 순 배가로 16.0%의 응답자가 이를 선택하였다. 청구기호 순 배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출판사별 배가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을 통해 책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구기호가 뒤섞인 출판사별 배가 방식보다는 청구기호만 알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청구기호 순 배가를 선호한다는 답변이었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는 초등학생들이 학년별로 권장도서가 나뉘어 있듯이 유아들도 연령별로 이용하기 적당한 책이 나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용자도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영아책을 영아의 발달 단계에 맞게 개월 수로 책이 구분되기를 바라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이에게 새로 나온 책 위주로 보여주기 위해 책의 입수순 배가를 원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3.3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3.3.1 온라인 검색과 브라우징

영유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서가에 접근하여 브라우저를 통해 도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의 이용 정도를 물어본 결과 대체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들이 검색을 통해 책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권장도서로 지정한 도서를 찾고자 경우에 검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간 동안 보호자 혼자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빌릴 때에도 미리 도서를 선정하고 검색을 통해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검색시스템을 이용하기 보다는 서가에 직접 접근하여 훑어보면서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도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과거에 비해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책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브라우징과 검색의 비율이 다르다고 응답한 사서들도 있었다. 즉, 이용자가 많고 주택가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검색을 하는 이용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보호자 연령층이 높거나 이용자 수가 적은 곳에서는 브라우징을 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유아실에서 브라우징을 하는 경우와 검색을 하는 경우의 수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고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 이용자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영유아실에서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책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온라인검색시스템의 검색 결과가 배가 위치를 정확히 지시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3.3.2 온라인 검색 결과 분석

분석대상 도서관들은 모두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쓰고 있으며 도서관자동화 프로그램으로 KOLASⅢ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J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단일한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개별 시립도서관 혹은 전체 시립도서관의 어린이실/영유아실 자료 목록을 망라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 도서관 내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KOLASⅢ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자료의 자료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은 검색 범위를 특정한 도서관의 어린이실이나 영유아실로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장서를 위한 특화된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순검색

접근점은 구분(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사), 언어, 자료 형태, 발행년도가 전부였으며 상세검색에서도 표제, 저자, 표준번호, 분류번호 등의 접근점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의 서지사항에 근거한 내적 접근점만 제공되고 있었다.

분석대상 도서관들은 출판사별 배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청구기호만으로 원하는 책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가 특정 도서를 온라인목록을 통해 찾고자 할 때 검색 결과에 배가 상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만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25명의 이용자 중 12명은 온라인목록검색결과에 대해 매우 강한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책의 위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4〉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는 책의 온라인 검색 결과이다. 이 책은 모든 도서관에서 영유아실에 배치되어 있으나 검색 결과에서는 이것이 표시되지 않은 도서관이 많았다. 1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검색시스템은 어린이실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를 가지고 어린이실에서 자료를 찾아 헤매다가 뒤늦게 분리된 공간인 영유아실을 찾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서명 뒤 각괄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괄호는 출판사별 분류에 해당되는 도서관명 출판사명이 표시되어 있고, 색깔띠지 서가에 해당되는 도서관명 해당 색깔이 표시되어 있고, 그 이외에 자관만의 띠지를 부여한 도서관이라면 그 서가에 해당하는 띠지의 이름이 각괄호에 표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빨간띠지]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최윤정 옮김	킨더랜드	2013	송천아동실	일반자료
우리 아빠가 최고야[파랑]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최윤정 옮김	킨더랜드	2013	건지유아실	일반자료
우리 아빠가 최고야[파란띠지]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최윤정 옮김	킨더랜드	2012	죽구룡유아실	일반자료
우리 아빠가 최고야[파랑]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최윤정 옮김	킨더랜드	2007	아중유아실	일반자료
우리아빠가 최고야[S]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최윤정 옮김	킨더랜드	2011	평화아동실	일반자료
우리 아빠가 최고야. [2] [유아실, 킨더]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최윤정 옮김	킨더랜드	2007	인후아동실	일반자료
우리 아빠가 최고야. [2] [킨더랜드]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최윤정 옮김	킨더랜드	2007	서신유아실	일반자료
우리 아빠가 최고야[영어]. [2]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 최윤정 옮김	킨더랜드	2007	금암아동실	일반자료

〈그림 4〉 동일 서적에 대한 온라인 검색 결과

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청구기호가 아닌 이 각괄호를 우선으로 확인해야 원하는 도서가 위치한 서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 25명 중 각괄호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용자는 겨우 10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각괄호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각괄호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색깔띠지와 검색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도서는 검색 결과에서는 빨강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란 띠지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연구자가 여러 권의 책을 검색해본 결과 모든 도서관에서 각괄호의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

수 발견되어 이러한 오류가 전체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출판사별 배가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들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자녀의 학교에서 과제로 정해진 권장도서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만 어린이실이나 종합자료실에 비해 검색을 한 후 서가에서 책을 찾는 일이 너무 어려워 여러 번 실패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찾고자 하는 도서의 목록을 적어와 바로 사서나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주며 찾아달라고 한다고 답변하였다.

여러 이용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검색 및 배가 방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 도서관들 중 검색대에 안내

문을 게시하여 각괄호 및 도서검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4곳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 영유아실만을 위한 안내가 아닌 전체 도서관 안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지 않는 이용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그 내용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 이용자는 이용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도서관 한쪽 벽면에서 상시적으로 상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다른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용방법 동영상을 시청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한해서만 도서 대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 J시 시립도서관 영유아실 자료 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J시 시립도서관들은 영유아 도서에 KDC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배가는 출판사별 배가 방식을 채택하여 분류와 배가 방식이 이분화되어 있으며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에는 정확한 배가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류, 배가,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 간의 유기적이지 못한 운영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발견하고 접근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도서관들의 자료조직 방식이 애초에 이용자의 접근편의성보다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데서 비롯된다. 즉, 사서들은 본관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청구기

호와 목록을 입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자관 내에서는 재정리의 편의를 위해 청구기호에 상관없이 출판사별 배가를 실시하고 정확한 배가 정보를 목록에 추가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서들은 가능한 현재의 자료조직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용자들이 이 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도서관 이용경험이 많은 이용자들조차 출판사별 배가 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목록검색시스템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사서와 이용자들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J시 시립도서관들은 현 체제 내에서 표면적인 개선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책을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와의 인터뷰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방안은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도서관에서는 장서 규모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판사별 배가가 아닌 청구기호 순 배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분류와 배가 방식의 분리는 관리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어린이 자료의 배가에 있어서 KDC 분류를 근간으로 하는 청구기호 순 배가를 하고 있다. 물론, 임기수(2012)

가 지적인대로 KDC가 본래 대규모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KDC에 기반한 분류를 하더라도 청구기호에 의한 배가보다는 그림책의 특성에 맞는 서명의 가나다순이나 출판사별 또는 주제별 등으로 배가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인 배가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J시립도서관 영유아실은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장서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에 따라 출판사별 배가와 동시에 청구기호나 국가와 같은 다른 배열기준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청구기호 순으로 배가 방식을 전환하게 되면 분류와 배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단일한 기준으로 배가가 실시되어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영유아 도서관의 대부분이 KDC의 800번대(문학)에 편중된다는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찍이 이 문제에 직면했던 도서관들은 KDC를 수정 전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처럼 다른 서기는 100구분 하면서 800번대는 10구분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므로 J시립도서관들도 이러한 선행 사례들을 참고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KDC가 아닌 영유아 자료를 위한 새로운 분류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서들은 KDC가 영유아실의 도서관을 분류하는데 최적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도서관 간의 자료호환성 면에서, 그리고 어린이실이나 종합자료실 이용의 연계 면에서 KDC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DDC나 KDC와 같은 주제 기반 분류표를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가 특정한 자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서가 브라우저를 통해 원하는 책을 발견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Foskett, 1996, p. 26). 따라서 분석대상 영유아실에서와 같이 출판사별로 배열하면서 KDC를 부차적인 배열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KDC로 분류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관의 영유아 자료에 특화된 새로운 주제 분류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용자 인터뷰에서도 출판사별 배가 다음으로 영유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에 대한 배가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연경과 최윤경(2009)의 연구에서 부모와 어린이 모두 학년별, 연령별 배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정연경과 최윤경(2009)의 연구에서 8-13세의 초등학생들이 학년별 필독도서나 권장도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반면에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은 특정한 주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시립도서관에서는 향후 면밀한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주요 관심 주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분류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에도 파랑새 분류법이나 느티나무 분류법과 같은 어린이도서관 전용분류표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분류표들은 국내 어린이도서관 현장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나름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과 논리적 모순

도 보고된 바 있으므로(문지현, 2008)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분류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문제점은 자료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서 규모가 큰 도서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영유아실에 특화된 분류표를 마련함으로써 한 도서관 내에서 KDC와 영유아용 분류표로 분류체계가 이원화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arien 도서관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 분류표에 의한 주제어와 기존의 KDC 번호를 책 등라벨에 함께 병기한다면 사서는 분류목록작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KDC 번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은 모두 도서관에 대한 주제별 접근을 지원하기 때문에 출판사명, 저자명 등 주제 이외의 접근점으로 책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주제의 중복이 많고 동일한 도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영유아 자료의 경우, 이용자들의 도서 선정 기준에 있어 출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들이 도서 선정의 기준으로 출판사의 신뢰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모들이 세계명작이나 전래동화와 같은 전집의 선정 시 출판사의 명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언급한 사서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전집을 별치하고 출판사별로 배열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주제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도서를 찾고자 하는 부모들이나 나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온라인검색목록시스템에서 다양한 접근점들을 제공함으로써 주

제 기반의 배가 방식을 보완하는 것도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영유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영유아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공공도서관 영유아실의 자료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J시 시립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시에 소재하는 8개 시립도서관 어린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와 영유아실을 이용하는 보호자 2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대상 도서관들의 영유아실 자료조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영유아실의 분류와 배가 방식의 이원화로 인해 자료 접근과 검색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가 방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사용되는 색깔 따지의 오류 및 온라인 목록 검색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고, 도서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해결책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지향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분류에 있어서 KDC를 유지하되, 출판사별 배가를 청구기호 순 배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분류와 배가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두 번째 방안은 영유아 자료에 특화

된 새로운 주제 분류체계와 배가방식을 고안하는 것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도서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나 도서관 내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각 방안은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서관들은 장서 규모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관들은 영유아 자료 조직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Darien 도서관 분류표나 Metis 분류표는 서가에서의 주제별 브라우징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장르별로 책을 찾거나 이용자의 읽기 능력 수준에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분류표도 있다. 이렇게 자료조직의 목적이 설정된 이후에야 그

목적에 적합한 자료조직 방식을 선정 혹은 개발할 수 있다. 단순히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조직 방식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J시립도서관들은 이제부터라도 영유아 자료조직의 취지와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답변을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사서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용자 인터뷰 대상자는 전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만큼의 많은 수는 아니기에 좀 더 광범위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경신 (2013). 공공도서관 영유아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장서개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국민독서문화진흥회, '2015 내 생애 첫 책' 지원사업 시범사업 성료. (2016. 3. 10). 뉴스와이어. Retrieved from <http://m.newswire.co.kr/newsRead.php?no=819862>
- 권달영 (2008).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비교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김정현 (2004).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171-191.
- 김정현, 김연례 (2003). 학교도서관을 위한 한국십진분류법 분류항목 수정전개에 관한 연구: 총류 및 문학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3), 35-56.
- 김정현, 문지현 (2007).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315-335.
- 김천숙 (2005). 공공도서관의 그림책 분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

보학과.

- 문지현 (2008). 어린이도서 분류표 개발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방혜옥 (2012). 공공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희정 (2011). 공공도서관 영유아 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윤선 (2002).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간략판 개발 (300, 400, 800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이채령 (2012). 어린이도서관 자료조직 실태연구 - 부산·울산·경남지역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임기수 (2012). 어린이도서관의 그림책 분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전공.
- 정연경, 최윤경 (2009).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한국 십진분류법 적용현황 및 이용자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7-25.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1.005>
- 정진수 (2009). 어린이자료의 접근점 분석: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01-113.
- 조지은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Foskett, A. C. (1996).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5th ed. London: Library Association.
- Hembree, J. (2013). Ready! Set! Soar! Rearranging your fiction collection by genre. Knowledge Quest, 42(2), 62-65.
- IFLA (2015).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y services. Retrieved from <http://www.ifla.org/publications/guidelines-for-children-s-library-services>
- IFLA (2014).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and toddlers. Retrieved from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professional-reports-100>
- Jackman, B. (2014). Genre shelving: Why and how I made the leap. Library Media Connection, 32(5), 22-24.
- Kaplan, T. B., Giffard, S., Still-Schiff, J., & Dolloff, A. K. (2013). One size does not fit all: Creating a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lassification for your children's collections. Knowledge Quest, 42(2), 30-37.
- Parrott, K., & Gattullo, E. (2013). Throwing Dewey overboard. Dewey Lite: A model for nonfiction reorganization. Children and Libraries: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11(3), 3-33.
- Solomon, P. (1997). Access to fiction for children: A user-based assessment of options and

opportunities. Information Services & Use, 17(2-3), 139-46.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ng, Hye Wook (2012). A study on developing programs for infants, toddlers & preschoolers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Chung, Jin-Soo (2009). An analysis on access points of childrens' materials: Using "A" online library catalog and "N" children's database in the U.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01-113.
- Chung, Yeon-Kyoung, & Choi, Yoon-Kyung (2009).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and users' needs in libraries for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7-25.
<http://dx.doi.org/10.4275/KSLIS.2009.43.1.005>
- Im, Gi Su (2012).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icture books in children's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 Jo, Ji Eun (2012). Services for mothers with baby and toddler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san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ang, Kyung Shin (2013). A study on effective collection development for services to young children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Chun-Sook (2005).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icture books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Kim, Jeong-Hyen (2004).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KDC for school libraries - Focused on vocabulary analysis of elementary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171-191.
- Kim, Jeong-Hyen, & Kim, Yeon-Rye (2003). A study on the revis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for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3), 35-56.
- Kim, Jeong-Hyen, & Moon, Ji-Hyun (2007).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children's

-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315-335.
- Kwon, Dal-young (2008). Study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s of children's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 Lee, Chae-Ryeong (2012). A survey of library materials organization for children's libraries - Focused on the libraries in Busan, Ulsan, Gyeongnam distric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Lee, Yoon Sun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bridged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for school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Library Science Major.
- Mun, Ji-Hyun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Readingnet successfully finished '2015 My life first book' project. (2016, March 10). Newswire. Retrieved from <http://m.newswire.co.kr/newsRead.php?no=819862>
- Yoon, Hee-Jung (2011). A study on the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public library's preschool services - Based on the examination of Daegu area's city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